

# 다니엘서 - 제124번

다니엘서 11장 40절의 베일을 벗기다 - 역사적 유사성과 미래 사건에 대한 예언적 고찰

Jeff Pippenger  
2024-03-08

우리는 40절을 다루면서 다니엘 11장의 구조를 시간을 들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언적 의미에서 40절은 다니엘 8장 14절과 평행을 이룹니다. 곧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그리스도께서 1798년에 봉인을 여신 빛이 다니엘 8장 14절에 근거해 있었던 것처럼, 그분이 1989년에 여신 빛도 40절에 근거해 있었습니다.

이전 글에서 지적만 하고 실제로는 다루지 않았지만, '줄 위에 줄'이라는 늦은 비 방법론을 적용할 때, 40절은 두 개의 별개의 선을 제시하는데, 이는 그 절이 첫째 천사의 운동과 셋째 천사의 운동 모두의 마지막 때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40절의 1798년의 끝의 때와 1989년의 끝의 때를 함께 놓고 보면, 다니엘서 8장 14절이 다니엘서 11장 40절과 일치함을 알게 된다. 이는 둘 다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예언적 역사에서 봉인이 풀린 지식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또한 14절은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갑작스럽게 '나타나시는'를 다루는 'mareh' 환상이고, 40절은 이천오백이십 년의 예언적 역사를 다루는 'chazon' 환상이라는 사실로도 서로 연결된다. 하나는 한 시점이고, 다른 하나는 한 기간이다.

하나는 성전의 회복과 정결을 나타내고, 다른 하나는 성전의 파괴와 유린을 나타낸다. 하나는 2300년을, 다른 하나는 2520년을 나타낸다. 하나는 올라이 강으로, 다른 하나는 히데겔 강으로 상징된다. 하나는 인성을, 다른 하나는 신성을 나타낸다. 올바르게 이해하면, 14절과 연결된 40절은 놀라울 정도로 심오하다. 1798년은 신성의 사역을, 1989년은 인류의 반역을 나타낸다.

우리는 이전 글에서 북방 왕이 세 가지 장애물을 정복하는 묘사가 순차적인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묘사된 사건들의 실제 적용은 신중히 적용되어야 함을 확인했다. 이는 42절부터 44절까지가 사실상 41절과 맞물려 있으며, 41절은 미국에서 곧 다가올 일요일법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바로 그곳에서 삼중 연합이 이루어지며, 거기서 "동"과 "북"의 큰 외침의 기별이 시작된다.

다니엘서 11장에서, 재림교 연구자들은 오랜 세월 동안 다니엘이 로마를 묘사할 때 특정한 기법을 사용한다는 것을 인식해 왔다. 유라이어 스미스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서 이 점을 지적한다. 다니엘은 먼저 로마가 어떻게 세상을 장악하는지를 밝히고, 이어지는 구절들에서는 역사의 시작으로 되돌아가 그 정치적 정복을 설명하며, 바로 그 동일한 역사 속에서 로마가 하나님의 백성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밝힌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가 어떻게 끝을 맺는지를 제시한다. 다니엘이 사용하는 원리는 "반복과 확대"라고 불린다.

이 세 단계 기법은 40절부터 45절에서 확인된다. 40절부터 43절에서는 현대 로마가 지구 전체를 장악하는 세 단계 과정을 제시하고, 이어 44절에서는 다니엘이 41절로 되돌아가 그때 144,000의 기치로 선포되는 '소식'이 전해질 때와 교황권이 큰 분노로 나아가 많은 이들을 멸하고 완전히 없애려 하는 때를 다룬다. 그리고 45절과 12장 1절에서는 인류의 은혜의 기간이 끝나면서 바다들과 영화로운 거룩한 산 사이에서 교황권이 아무의 도움도 없이 그 끝을 맞는다.

다니엘 11장 30절에서 우리는 화이트 자매가 36절까지 문자 그대로 인용한 역사 서술의 시작을 보게 되며, 이어서 그녀는 "이 절들에 묘사된 것들과 유사한 장면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기록한다. 30절과 31절은 각각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를 성경 예언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왕국으로 규정하는 역사적 전환을 보여 준다. 31절은 교황 로마가 538년에 지상의 권좌에 오르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역사를 서술한다.

31절에서 가장 먼저 지적되는 것은 프랑크족(오늘날의 프랑스)의 왕 클로비스가 496년에 교황권을 위해 일어섰던 때이다. 이어 클로비스는 노골적인 이교에서 그의 아내 클로틸다의 종교인 가톨릭이라는 숨은 이교로 개종했다. 그는 자신의 왕권을 교황권을 세상의 왕좌로 끌어올리는 데 바쳤다. 그 절에서는 클로비스가 "팔들"로 표현되었는데, 그가 그때 착수한 일을 위해 군사력이라는 팔과 금력이라는 팔을 바쳤기 때문이다.

클로비스의 초기 활동은, 역사가 전개됨에 따라 로마의 음녀를 위해 각종 지원을 제공하도록 운명지어진, 한때 이교도였던 유럽의 모든 왕들의 활동을 대변했다. 클로비스, 그리고 그 이후 프랑스는 가톨릭 교회에 의해 '가톨릭 교회의 장자'이자 또한 '가톨릭 교회의 맏딸'로 기름부음을 받았다. 그는 두로의 음녀와 음행할 많은 왕들 가운데 첫 번째를 상징하는 인물이었다.

이 예언적 의미에서 클로비스는 아합으로 대표되었는데, 아합은 또한 이세벨(요한계시록에서 가톨릭 교회의 상징)과 음행하였고, 열 지파의 우두머리 왕이었으며, 마찬가지로 클로비스는 이교 로마의 열 뿔(다니엘 7장을 보라)의 대표적 상징이 되었다. 그 유럽의 왕들은 결국 바벨론의 음녀를 땅의 왕좌에 세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아합과 클로비스는 둘 다 마지막 때에 교황권과 음행하는 미국을 대표한다.

로널드 레이건은 음행을 시작했으며, 그는 유엔의 다른 아홉 왕들에게도 같은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마지막 대통령이 될 것이다. 레이건은 1989년 종말의 때에 대통령이었고, 그러므로 그는 다른 아홉 왕들이 같은 행위를 행하는 역사에서 마지막 대통령을 예언적으로 상징해야 한다. 이는 예수께서 언제나 어떤 것의 끝을 그것의 시작으로 보여 주시기 때문이다. 레이건은 부유하고 잘 알려진 미디어 인물이었으며, 자신만의 독특한 화법으로 크게 인정받았고, 처음에는 민주당 소속이었으나 결국 공화당으로 옮겼다.

31절에서, 교황권을 대변하는 군대가 견고한 성소를 더럽힐 것이다. 예언적으로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 모두에게 견고한 성소는 로마 시였다. 이는 이 두 로마가 모두 일정 기간 동안 로마 시에서 통치했으며, 그들이 로마 시에서 통치할 때 사실상 무적이었기 때문이다.

이교 로마는 기원전 31년 악티움 해전에서 360년간의 통치를 시작했다. 다니엘서 11장 24절은 그들이 '한 때' 동안 그들의 본거지인 로마에서 계책을 꾸밀 것이라고 밝힌다. 예언에서 '한 때'는 360년을 의미하며,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패배한 악티움 해전으로부터 360년이 지난 뒤, 콘스탄티누스는 로마를 떠나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겼고 이교 로마의 불패 시대는 끝났다.

538년에 교황권 로마의 세 번째 지리적 장애물이었던 고트족이 로마 시에서 축출되었을 때, 교황권 로마의 1,260년간의 지배적 통치가 시작되어 1798년까지 계속되었고, 그때 교황이 로마 시에서 연행되면서 교황권 짐승에게 예언된 치명상을 입혔으며, 이듬해인 1799년에 그 교황(짐승을 탔던 여인)은 감금 중에 사망했다.

교황권을 지지하여 나선 군사력(클로비스)은 힘의 성소를 더럽히게 될 것이었고, 콘스탄티누스는 로마를 콘스탄티노플보다 열등한 도시로 사상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일을 시작했다. 그때부터 그 이후의 역사에서 로마의 적들이 수행한 전쟁은 언제나 로마 시를 공격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고, 476년에 이르러서는 그 도시에 실제 로마 혈통의 통치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으며, 538년에 그 도시가 교황 로마의 힘의 성소가 될 때까지 그러했다.

아합, 클로비스, 그리고 프랑스는 미국을 예표하며, 미국의 힘의 성소는 미합중국 헌법이다. 그 문서는 신성한 문서이며, 예언적 역사에서 하나의 이정표이다. 1989년으로 이어지는 역사에서 로널드 레이건이 교황권을 위해 일어난 이후, 헌법은 이교 로마의 쇠퇴와 몰락 당시 힘의 성소가 그랬던 것처럼, 끊임없이 격화되는 공격을 받아 왔다. 머지않아 미국에서 주일법이 시행되면, 헌법은 완전히 전복될 것이다. 레이건 시절부터 그 주일법에 이르기까지, 서기 330년부터 538년까지의 역사가 반복된다. 538년에 교황권이 권좌에 올려졌는데, 이는 그 주일법 때 치명적인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로널드 레이건 시대에서 일요일법 제정에 이르는 기간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의해 특별히 지목된 예언적 기간이다. 클로비스로 대표되는 "무력"은 또한 한때 이교적이었던 로마 제국이라는 국가에서 "매일"을 제거하려 했다. 그 제국의 종교는 애초부터 이교였고, 클로비스는 노골적인 이교의 종교를 가톨릭의 종교로 대체하는 일을 시작했다. 가톨릭은 단지 위장된 이교일 뿐이다.

미국은 곧 다가올 일요일 법 아래에서 교황권의 표를 강제할 때, 개신교 신앙을 완전히 제거한다. 이는 'Protestant'라는 단어의 유일한 정의가 로마에 항의하는 자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로마 권위의 표를 받아들이면, 당신은 로마에 항의하는 것이 아니다. 아모스 3장 3절에서 아모스는 수사적 질문을 던진다. "두 사람이 뜻이 일치하지 않으면 어찌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교회의 제도와 관습에 대해 국가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현재 미국의 움직임 속에서, 개신교도들은 교황주의자들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 아니, 더 나아가, 그들은 구세계에서 상실한 지배권을 개신교 미국에서 교황권이 회복하도록 문을 열어 주고 있다. 대쟁투, 573.

508년에 이교가 그 왕국의 공인 종교의 지위를 박탈당했을 때, 그것은 미국에서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에서 불법의 사람이 드러나기 전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바울이 말한 '막는 자'가 제거되었음을 예표한 것이었다. 공공연한 이교가 가톨릭의 은밀한 이교로 전환되며 복속되는 일은 즉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고, 역사에서는 그 시작을 496년 클로비스의 가톨릭 개종으로, 그 완성을 508년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1989년에 시작된 레이건 시절부터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에 이르기까지, 미국에서는 진정한 개신교가 완전히 억제될 것이다. 그때 미국의 "힘의 성소"인 헌법이 뒤엎어지고, 31절의 "무력"의 네 번째 일이 성취될 것이며, 그때 그 "무력"이 538년에 그랬던 것처럼 교황권을 지상의 왕좌에 앉힐 것이다.

교황권이 538년에 권좌를 차지하자, 다니엘서의 서술은 교황권이 어떻게 세계를 장악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에서, 그 역사 속에서 교황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했는가 하는 주제로 전환되었다. 다니엘서 10장 14절에서 가브리엘은 자신이 곧 제시하려는 환상의 목적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를 보여 주는 데 있다고 다니엘에게 알려 주었다.

이제 내가 왔노니 네 백성이 후일에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 환상이 아직도 많은 날 후의 일임이라. 다니엘 10:14.

32절부터 36절까지는 화이트 자매가 반복될 것이라고 직접 말한 구절들이며, 그 구절들은 교황권이 538년에 왕좌에 올려진 때부터 1798년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때까지 이어진 1,260년 통치 아래의 박해를 묘사한다.

그는 언약을 거스르고 악하게 행하는 자들을 아침으로 타락시킬 것이다. 그러나 자기들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게 되어 위업을 이룰 것이다. 또 백성 가운데 명철한 자들이 많은 이들을 가르치겠으나, 그들은 칼과 불과 사로잡힘과 약탈로 말미암아 여러 날 넘어질 것이다. 그들이 넘어질 때에는 적은 도움을 받겠으나, 많은 이들이 아침으로 그들에게 붙을 것이다. 또 명철한 자들 가운데서도 몇은 그들을 시험하고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하려 함으로 넘어질 것이니, 끝의 때까지 그러하리라. 이는 아직 정해진 때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 왕은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게 하며, 신들의 하나님을 거슬러 기이한 말을 할 것이요, 진노가 마칠 때까지 형통하리니, 이미 작정된 일이 이루어질 것임이라. 다니엘 11:32-36.

이 절들은 암흑시대의 박해를 묘사하며, 이어 36절은 1798년에 이스라엘 북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첫 진노가 성취될 때까지 교황권이 번영할 것임을 밝힌다. 다니엘은 먼저 교황권이 어떻게 지상의 권좌에 올라섰는지, 다음으로 교황권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황권의 최후의 몰락을 밝혔다.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43절은 교황권이 어떻게 세계를 장악하는지를 밝히고, 44절은 교황권이 하나님의 말세의 백성을 어떻게 박해하는지를 밝히며, 45절은 아무도 도와줄 자 없이 교황권이 어떻게 최후를 맞는지를 밝힌다.

히브리어 "진리"라는 단어는 놀라운 언어학자가 히브리 알파벳의 첫째, 열세째, 마지막 글자를 모아 만들어낸 것이다. 열셋은 반역의 상징이며, 첫째는 마지막을 대표한다.

31절은 성경 예언의 네 번째 왕국인 이교 로마의 종말을 묘사하고, 36절은 성경 예언의 다섯 번째 왕국인 교황 로마의 종말을 지목한다. 로마의 몰락에 대한 최초의 묘사와 마지막 묘사 사이에는, 시작과 끝 사이의 역사에서 교황권이 하나님의 백성 수백만 명을 살해한 것으로 대표되는 배도가 자리한다. 이 구절들의 적용은 '진리'의 표징을 지니고 있다.

40절부터 45절까지는 30절부터 36절까지에 의해 예증되며, 교황권의 몰락으로 시작해서 교황권의 몰락으로 끝난다. 1798년에 시작되어 은혜의 시기의 종결에 이르는 그 역사 한가운데에는 현대 로마의 반역이 있으며, 그것은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살해한다. 이 구절들의 적용 또한 "진리"의 표징을 지니고 있으며, 서로 일치하여 "진리"를 확립하는 두 증인을 제공한다. 그리고 두 줄기 모두 로마를 묘사하는데, 로마는 환상을 "확증할" 상징이다.

그 때에 많은 사람이 일어나 남방 왕을 대적할 것이며, 또 네 백성 가운데 강포한 자들이 스스로 높여 그 이상을 이루고자 할 것이나, 그들은 넘어지리라. 다니엘 11:14.

다니엘이 11장에서 사용하는 예언적 전개 방식은 30-36절과 40-45절에서만 사용된 것이 아니다. 14-19절은 이교 로마가 어떻게 세계를 장악했는지를 밝히고, 20-24절은 이교 로마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밝히며, 24-30절에서는 이교 로마의 몰락이 제시된다.

14절은 이교 로마의 시작이고 30절은 이교 로마의 끝이다. 중간 부분에 나타난 역사에서 이교 로마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지목되며, 그러므로 그 중간의 반역이 이 구절들이 '진리'임을 입증한다. 알파와 오메가께서 다니엘서 11장 전체에 걸쳐 그분의 서명을 남겨 두셨다.

40절에는 로널드 레이건 시대에 시작되는 역사가 담겨 있으며, 미국 대통령과 죄의 사람 사이에 맺어진 동맹을 밝힌다. 그것은 특정한 기간을 가리키는데, 그 기간은 538년에 그랬던 것처럼 교황권이 지상의 왕좌에 앉혀지는 것으로 끝난다. 오늘날의 프랑스에 해당하는 프랑크인의 왕 클로비스가 미국의 상징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클로비스는 레이건을 상징했다. 레이건은 개신교의 상징이었고, 클로비스는 이교의 상징이었다.

프랑크인의 왕 클로비스가 가톨릭으로 개종하게 된 전투는 톨비악 전투(질피히 전투 또는 쾰른 전투로도 알려져 있다)였다. 이 전투는 496년에 벌어졌다. 당시 클로비스는 이교도였으나, 전투 도중 그의 군대가 패배의 위기에 처하자 가톨릭 신자인 아내가 믿는 그리스도교의 하느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고, 승리하면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겠다고 서원했다. 클로비스는 실제로 전투에서 승리했고, 그 결과 그와 그의 프랑크 전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가톨릭으로 개종하여, 프랑크인의 그리스도교화 과정에서 중대한 사건이 되었다.

스스로 개신교도라고 밝힌 로널드 레이건은 로마의 교황과 비밀 동맹을 맺게 된 동기가 소련이 성경 예언의 적그리스도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레이건은 옛 소련과의 싸움에서,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 자신이 혼동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채, 적그리스도와 연합했다.

"말씀에 대한 이해가 혼란해지고 적그리스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반드시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게 될 것이다." Kress Collection, 105.

미국은 땅의 짐승의 두 뿔로 표현된 것처럼, 이중적인 예언적 상징이다. 프랑스 또한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소돔과 애굽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이중적인 예언적 상징이다. 프랑스는 교황권의 장자이며, 미국을 대표한 레이건은 요한계시록 17장의 열 왕 가운데 끝의 때에 두로의 음녀와 음행한 첫 번째였다. 그녀는 1798년에 끝의 때에 잊혔으나, 1989년에 끝의 때에 다시 기억되기 시작한다.

프랑스의 지도자 클로비스는 538년에 교황권이 권좌에 오르게 되는 것으로 이어지는 기간의 시작을 알렸고, 이어 교황권은 오를레앙 공의회에서 일요일 법령을 제정했다. 미국의 지도자 레이건은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을 통해 교황권이 다시금 세상의 권좌에 오르게 되는 것으로 이어지는 기간의 시작을 알렸다.

프랑스는 538년에 교황권을 왕좌에 올려놓은 이중 권세이며, 프랑스는 나폴레옹의 장군 베르티에를 통해 1798년에 교황권을 왕좌에서 끌어내렸다. 미국은 말세에 교황권을 왕좌에 올려놓을 것이며, 열 왕들 중 첫째가는 왕으로서 미국은 결국 "그녀를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기며, 그 살을 먹고, 불로 사를 것이다."

40절은 31절의 역사를 담고 있으며, 교황권을 다시 지상의 왕좌에 앉히는 일이 로널드 레이건으로 시작해 미국의 마지막 대통령으로 끝나는 기간으로 나타나 있음을 밝힌다. 그 마지막 대통령은 레이건으로 예표되었을 것인데, 이는 예수께서 언제나 시작으로 끝을 보여 주시기 때문이다.

다니엘서 11장의 처음 몇 구절에서 그 예언적 역사가 제시되며(2절), 우리는 그리스 왕국의 역사에 앞선 역사를 발견한다. 그리스는 유엔과 요한계시록 17장의 열 왕의 세계 단일 정부를 상징한다. 다니엘서 11장 3절은 알렉산더 대왕을 소개하고, 2절은 마지막 때의 세계 단일 정부에 앞선 역사를 나타낸다.

1절에서 가브리엘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국이 시작될 때 자신이 다리우스를 강하게 하였다고 간단히 밝힌다. 그러나 가브리엘이 10장에서 다니엘에게 왔을 때는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아니라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가 통치하고 있었다. 그 왕국을 메대와 페르시아의 예언적 이중 왕국으로 분명히 묶어 설명한 뒤(프랑스와 미국이 그러하듯), 가브리엘은 이어 알렉산더 대왕의 전 세계적 왕국에 앞서는 역사를 소개한다.

이제 내가 네게 진리를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는 아직 세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다음의 넷째는 그들 모두보다 심히 부요하리라.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져서 모든 사람을 격동하여 헬라 왕국을 대적하게 하리라. 다니엘 11:2.

알파와 오메가는 언제나 어떤 것의 끝을 그 시작과 함께 보여 주며, 2절은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왕국으로 대표되는 세계 단일 정부의 시행에 앞선 역사를 말한다. 2절은 미국을 다루는 예언의 한 줄로서, 미국은 메대와 바사의 이중 권세와 프랑스로 전형화된 바와 같이 말세의 두 뿔 가진 권세이다. 그 절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루는 삼중의 세계 단일 정부에 앞서 일어설, 말세의 미국 대통령들을 상징하는 왕들을 지목한다. 클로비스는 적그리스도를 다시 왕좌에 앉히는 데로 이어지는 역사의 시작에서 첫 번째 대통령에 해당하는 인물로서 레이건에 비견된다.

다니엘서 11장에서, 고레스의 때부터 세 명의 대통령이 있을 것이고, 그 뒤에 그들 모두보다 훨씬 더 부유한 네 번째가 뒤따를 것이다. 다리오는 메대-바사 제국의 첫 번째 왕이었고, 다니엘이 가브리엘에게서 그 역사를 전해받았을 때 통치하고 있던 고레스는 두 번째 왕이었다. 고레스의 뒤를 네 명의 왕이 이을 것이므로, 그 뒤의 왕들 가운데 네 번째는 여섯 번째 왕이 될 것이다.

여섯째 왕은 가장 부유한 왕일 것이며, 그 부유한 대통령(왕)은 모든 사람들을 선동해 그리스의 왕국에 맞서게 할 것이다. 레이건 이후의 대통령들은 첫째 부시, 클린턴, 둘째 부시, 오바마였으므로 여섯째이자 가장 부유한 왕은 트럼프가 될 것이다. 그 왕(대통령)은 그리스의 왕국(글로벌리스트)을 "stir up"할 것이다. 히브리어 표현 "stir up"의 정의는 꽤 유익하다.

그 구절에서 "stir up"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깨우다" 또는 "깨어나다"를 뜻하는 원시 어근이다. 키루스 이후 네 번째 통치자로 상징되는 역사에서, 다른 어떤 대통령보다 훨씬 부유한 한 대통령이 세워질 것이며 그의 힘과 권세로 그리스에 맞서는 "각성"이 촉발될 것이다. 세계화, 진보주의, 그리고 "워크이즘"의 상징인 그리스는 여섯 번째이자 가장 부유한 대통령의 역사 속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될 것이다. 그는 진보적 "워크이즘"과 세계 지배를 둘러싼 논쟁에 전 세계를 눈뜨게 할 것이다.

가장 부유한 대통령의 집권기에 촉발된 진보적 '각성주의' 운동에 대한 각성은 공화당의 뿔에서 일어나며, 바로 그때 개신교의 뿔에서는 열 처녀의 각성이 일어난다.

다음 글에서 다니엘서 11장 40절에 대한 우리의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믿음과 경건의 광범위한 쇠퇴에도 불구하고, 이들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따르는 이들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땅 위에 최종적으로 임하기 전에, 사도 시대 이래로 본 적이 없는 원초적 경건의 부흥이 주님의 백성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그의 자녀들에게 부어질 것이다. 그때에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대신해 버린 그런 교회들로부터 많은 이들이 자신을 분리할 것이다. 목회자들과 평신도를 막론하고 많은 이들이, 주님의 재림을 위한 백성을 예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때 선포되게 하신 그 위대한 진리들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영혼들의 원수는 이 일을 방해하고자 하며, 그러한 운동의 때가 이르기 전에 그것을 가로막기 위해 가짜를 들여오려 애쓸 것이다. 그가 그의 기만적인 권세 아래 둘 수 있는 교회들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부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며, 큰 종교적 열성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나타날 것이다. 무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다고 환호하겠지만, 그 일은 다른 영의 역사이다. 종교적 외양을 쓰고 사탄은 기독교 세계 위에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려 할 것이다. 대쟁투, 464쪽.